

광주 전선지중화율·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국 최하위

송갑석 의원 지적 5년간 전선 지중화 전국 4백여km·사업비 7600억 중 광주 0.53km·16억...전기차 충전기 7221대 중 119대

거미줄 처럼 하늘을 가리고 있는 전선을 땅에 묻는 사업인 광주지역 전선지중화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또 전기차 5만대 시대를 눈앞에 뒀는데도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광주시가 최하위였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상반기 전선지중화 사업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의 전선지중화 사업 실적은 0.53km(사업비 16억

4000만원)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최근 5년 간 한전은 7609억9000만원을 들여 전체 515개 구간, 399.9km의 배전선로 전선을 지중화했다. 이 중 경기도는 67.8km로 가장 긴 구간을 지중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 53.6km, 강원 50.8km, 경북 48.0km 등의 순이다. 하지만 광주는 0.53km로 17개 시도 중 가장 짧았다.

사업비의 경우에도 경기도가 1373억8000만원으로 전체 18.1%를 집행한 반면 광주는 16억4800만원으로 전체의 0.22%에 불

과했다. 사업개수도 경기 86개, 강원 63개, 서울 63개, 전북 57개, 경북 49개, 충남 40개, 전남 29개인 반면 광주는 단 1개에 그쳤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전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한다. 한전은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지중화분담금 장기분할 상환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로 인한 지자체의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

(1.37%)에 그쳐 지자체별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등록전기차 1055대에 충전기는 119대(11.28%)로 충전시설이 매우 부족한 반면, 세종의 경우 249대 등록에 163개소(65.46%)에 달해 충전인프라의 특정 도시 집중현상이 발생했다.

송 의원은 "안정적인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운전자가 전국 어디서나 차질 없이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차세대 국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인 만큼 한전이 설치 대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보다 면밀한 설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는 119대(1.65%), 울산 99대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씨름' 세계유산 눈앞 유네스코 '등재 권고' 결정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우리 정부가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씨름'을 심사해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등재', '정보보완', '등재 불가' 세 등급으로 나눠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이 결과는 이면이 없는 한 그대로 수용된다.

평가기구는 "씨름은 한국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며 "명절에는 항상 씨름 경기가 열려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가기구는 북한이 신청한 '씨름'도 함께 등재 권고 판정했으며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개최되는 제13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구마모토역에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통해 들어선 시설물. 구마모토성의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29일 전남도청 서재발실에서 열린 '전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최형식 당양군수, 김병태 한국투자개발공사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등 위원들이 청렴문화 조성 등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의장에 박기종 목포대 총장

전남도가 청렴도 최하권 탈출을 위한 민관협의를 구성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사회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체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구성, 이날 출범식을 했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6월 제정된 '전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구성됐다.

전남지역 공공기관을 비롯해 시민사회, 언론·학계, 경제·직능부문, 공익부문 등 각계 대표 22명이 참여했다. ▲시민사회 부문 6명(순천경찰서, 한국투자개발공사 광주전남본부, 전남여성단체협의회, 목포YWCA, 전남지구청년회의소, 전국이동장학회의 전남도지부) ▲언론·학계 3명(도청출입기자단, 목포과학대, 한국반부패정책학회 광주전남지부지역학회) ▲경제·직능부문 7명(순천상공회의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전남·목포소비자연맹, 전남경영자총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

남도회) ▲공익대표 4명(전남도의회,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공공부문 3명(전남도, 전남도 교육청,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이다. 이들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협의회 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부문 의장에 박기종 목포대학교 총장을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마련했다. 또 청렴사회를 위한 실천과제 마련과 실천 의무를 약속하는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단체는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부패 방지 및 청렴활동에 상호 교류·협력한다. 또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 및 도민의 제안을 적극 수렴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최저가 입찰제·업체 수익 우선·디자인 인식 부족에 '광주다움' 없다

1면 '도시 건축'에서 계속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2-3개 층을 낮추거나 외관 페인트 색상 변경 등 극히 일부만을 수정하는 기 능에 멈추고 있다. 디자인 및 설계 전반을 변경하게 되면 비용·시간 등에서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경관위원회 위원 10명 중 3명이 이상이 이해관계가 있는 건축사·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져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 도시 공간보다는 위원들 자신이 맡거나 맡을 예정인 건축물 심의를 더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선 7기 들어 광주시가 '광주다움'을 강조하며 건축 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나서고

있으나 공공건축물 역시 낮은 가격을 최우선 계약 조건으로 하는 '최저가 입찰제도'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 구마모토현은 일본 규슈지방의 중서부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이며, 면적은 7404.89km²로 전남(1만2309.03km²)의 5분의 3 정도다.

2018년 10월 1일 현재 71만8125세대 175만6442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마모토현의 현청소재지는 구마모토시로, 면적은 390.32km²에, 74만282명(32만1266세대)이 살고 있다. 인구 순으로 일본에서는 17번째 도시다.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었던 구마모토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에 알려진 이유는 후일 총리가 오르는 호소가와 모리히로 당시 현직자가 1988년 구마모토 아트폴리스(K.A.P: Kumamoto Art Polis)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부터다.

1987년 베를린 건축전을 계기로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유명 건축가 중 '커미셔너(Commissioner, 최고 관리자)' 지정·운영, 구마모토 건축전 개최, 홍보 및 교육 등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아파트, 박물관, 학교, 병원, 다리 등 112개의 '색다른' 건축물이 도심 곳곳에 들어서 도시를 빛내고 있다.

구마모토현청 건축주택국 아트폴리스·유니버설디자인 담당 우에노 미에코씨는 "아트폴리스를 30년간 유지하면서 구마모토의 역사이자 정체성으로 자리잡았으며, 민간건축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좋은 디자인이 계속 창출되고 있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건축주, 건축설사, 전문가,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이 꾸준히 소통하는 시스템도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풍수 사주 >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구술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개강 (초급 및 중급)

- 일시: 2018. 10. 30(화) 오후 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풍수 + 사주 15만원(매일)

공개강좌

- 일시: 2018. 10. 23(화) 오후 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 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상어,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m²(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m² 주택 70m² 1억천
- 장성 삼계면 죽림리 1636m² 백일홍 꾸지뽕나무 300주 48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m² 광주서 30내 4900만원
- 보성 문덕면 대원사입구 전원주택지 5981m² 교환가능 7억

주택·원룸·아파트

- 아파트 서구 능동동 제일파크 14층 105m² 깨끗함, 리모델링완료 1억7천
- 농성초전면 월산동 소방도점 대지 129m² 주택 66m² 은행5천,1억3천
- 월산동 농성초 건너편 소방도점 대지 149m² 2층주택 115m² 1억3천
- 서구 쌍촌동 2층 주택 105m² 새 주택 118m² 운전저수지부근 2억7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4413m²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소태동 대지 261m² 주택 78m² 조용한 생활 적합 1억9천
- 담양 월산면 가든 땅 1658m² 상가주택과 교환원 6억2천
- 강진 신전면 태양광 적합지 30259m² 주택있음 6억5천
- 남평읍 평산리 담·전 8461m² 공시지가 2억천 투자에 양호 8억2천
- 광산구 대산동 잡종지 등 1554m² 참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m² 다세대·빌라·사할 등 적합 10억 천
- 총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m²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7천
- 유동 소방도 상업지 331m²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상가건물

- 동구 서석동 대지 404m² 5층건물 919m²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용봉동 고시빌 357m² 건평 829m² 45실 은행 7억 교환가능 9억
- 양산동 대지 231m² 4층 안집과 원룸·투룸 497m² 교환가능 6억7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m² 상가주택 357m²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전 상가주택 땅 172m² 건평 279m² 4억5천
- 순천만 대동동 팬션 땅 332m² 객실, 관리실, 은행3억 영업잠실 3억천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m² 건평 1996m² 병의원적합 20억
- 양림동 땅 274m² 건물 751m²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